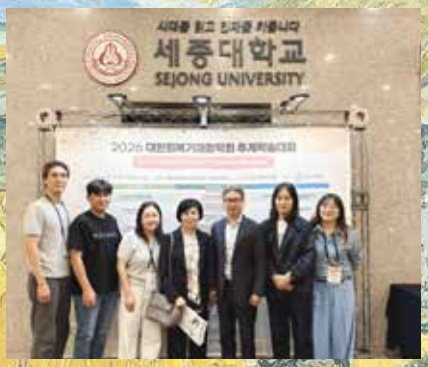
2026.09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53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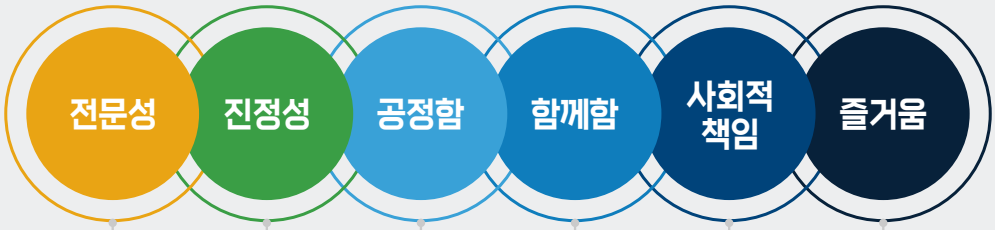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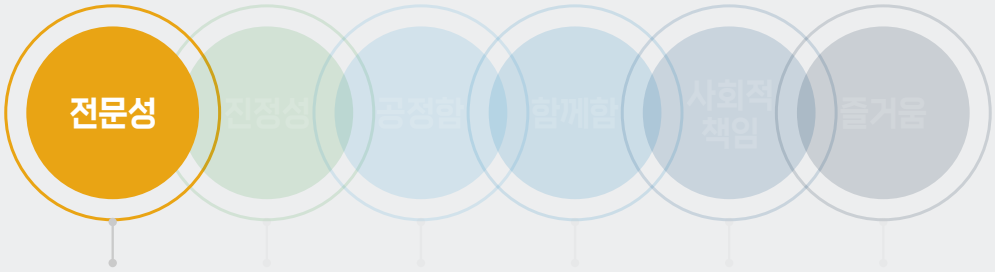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출범 (09.01)

안녕하세요, 백선미입니다.

오늘 9월 1일은, 우리 병원이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서는 날입니다.

지난해 6월, 법인 전환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그려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동시에 '전환'이라는 큰 산까지 함께 넘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렇게 4월 30일 의료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9월 1일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으로의 명칭 변경까지 마무리하게 되였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길의료재단은 지속 가능한 성장 위에서 투명하게 경영하고, 함께 이룬 성과는 언제나 공정하게 나누는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치가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삶을, 또 우리를 찾아주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6. 9. 1.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이사장 백 선 미 드림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온길 | 온길의 네 가지 길

Whole-Gil · 온전한 길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온전한 회복까지 함께합니다.
소중한 신체를 온전히 지켜내고, 체계적인 재활과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치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가장 '온전한 길'이 되겠습니다.

On-Gil · 당신을 중심에 둔 길
언제나 '당신(환자)'을 중심에 두고(Focus On),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100(온) 명의 환자에게는 100(온) 가지의 고유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 그 모든(온) 길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세상과 맞닿는
'온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溫-Gil · 따뜻한 동행의 길
의료가 나아가야 할 '따뜻한(溫) 길'입니다. 질병이라는 차가운 현실 너머,
가장 고되고 막막할 환자의 회복 여정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On-Gil · 변함없이 이어지는 굳건한 길
지금까지 환자를 향해 걸어온 진정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계속 걷겠다(Go On)는 굳건한 다짐입니다.
질병으로 잠시 멈추었던 일상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환자가 주체적인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심볼 (Symb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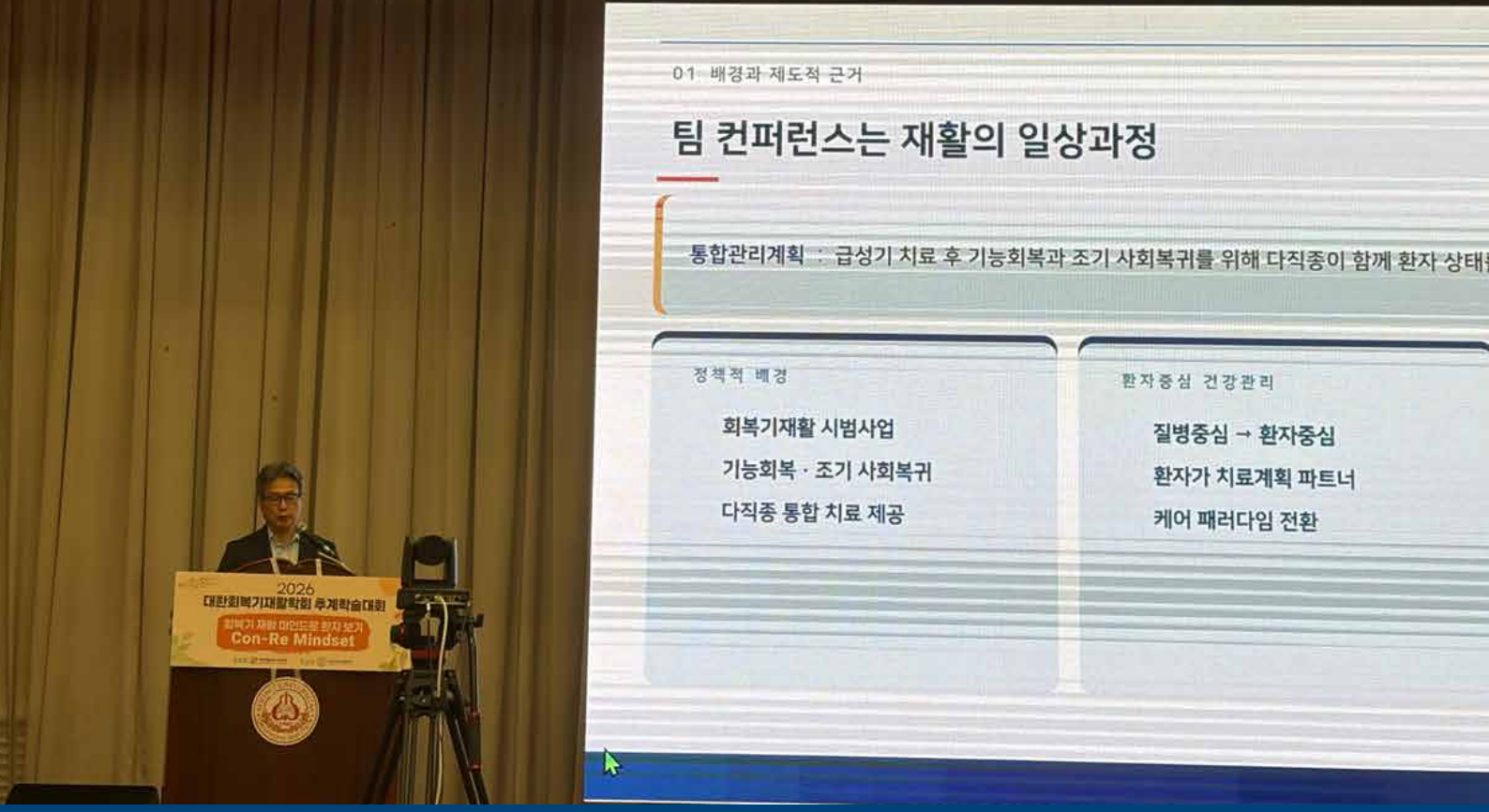
서로 마주한 두 사람의 형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사람과 사람, 의료와 삶, 병원과 지역 사회를 잇는 '온길'의 가치를 표현한 심볼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시작된 삶들이 하나로 이어져,
더 온전한(Whole)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뜻합니다.

서로를 감싸고 마주하는 모습에는 사람의 체온을 닮은 따뜻함(溫)과 배려,
그리고 동행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형태는 멈췄던 삶을 다시 켜고(On),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Go On)는 의미를 그려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의학과 김완호 원장님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의 (09.11)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김완호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복기 재활 마인드로 환자 보기, Con-Re Mindset'을 주제로, 환자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치료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완호 원장님은 '바람직한 팀 회의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팀 컨퍼런스를 단순한 치료 내용 공유가 아닌 여러 직종이 환자의 상태를 함께 살피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에서 운영 중인 정기·전체·가족 컨퍼런스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부터 퇴원 준비, 외래·낮병동·방문재활까지 이어지는 팀 기반 재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 직종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환자의 목표를 중심으로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팀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백선미 병원장님

대한 ITA 영상의학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최신 기법 강의 (09.05)



15:40~16:00	Newly Introduced Ablation Techniques for Thyroid Nodules	백선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지난 9월 5일 삼성창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대한 ITA 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갑상선 열절제술 세션의 연자로 참여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최신 기법과 안전한 시술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주변 신경과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막공간 기반 수압분리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근막공간 기반 수압분리술은 갑상선 주변의 해부학적 공간에 격리액을 주입해 갑상선과 신경 등 위험 구조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반회후두신경과 가까운 베리인대 주변과 갑상선 후내측 등 신경 손상에 주의가 필요한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결절의 위치와 초음파 소견에 따라 전외측·후방·기관 전방 접근법 등을 선택하는 맞춤형 시술 전략을 공유하셨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갑상선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절의 위치와 특성에 맞는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

연세대 의과대 신지철 교수님 초청 강의 (09.17)



지난 9월 17일, 재활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신지철 교수님 초청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신지철 교수님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장을 역임한 재활의학 분야의 권위자로, 척수손상 환자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까지 고려하는 재활치료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교수님은 “척수손상에 대해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적다”며 현재의 상태만으로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 예후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척수손상 재활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정확한 평가’를 꼽았습니다. 신경학적 평가를 통해 보행 잠재력을 확인하고, 근력·감각·균형 등 부족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과 손상 전 생활방식, 운동 경험, 재활 의지 등 환자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척수손상 환자에게는 더욱 긴 관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로봇과 재활 기술까지 고려해 지금의 기능만으로 10년, 20년 후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은 척수손상 재활에 대한 전문지식을 넘어, 우리가 환자의 가능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치료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TV CHOSUN

<이미지 출처: TV 조선 홈페이지 라이브 다시보기>

승용차가 왜 병원 5층에?…'퇴원할 준비' 강조하는 재활병원

TV조선 뉴스 방영 (09.27)

지난 9월 27일 TV조선 뉴스에 우리 병원의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재활 현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병원 내 실제 차량을 활용한 승·하차 훈련과 운전재활을 통해 환자들이 퇴원 후 독립적인 이동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활치료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환자가 다시 일상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조명했으며, 우리 병원에 이어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당초 TV조선 7시 뉴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아시안게임 야구 중계로 인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방영되었던 점. 그리고 오랜 시간 촬영한 것에 비해 실제 방송 분량이 짧아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 병원의 사회복귀 중심 재활 현장을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환자안전을 위한 꾸준한 참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2026 KOPS 자율보고 시즌 이벤트’ 선정 의료기관 (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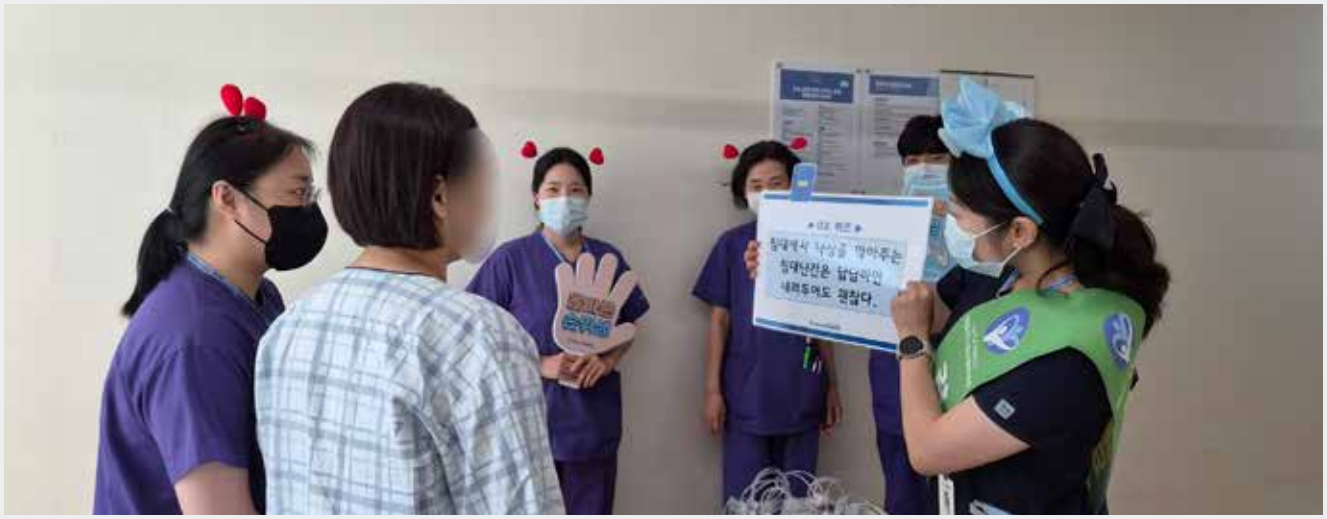
우리 병원이 경상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진행한 ‘2026 KOPS 자율보고 시즌 이벤트’ 선정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병원은 꾸준한 환자안전 자율보고 참여를 통해 KOPS 자율보고 시즌 이벤트 선정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포상으로 업무용 A3 코팅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특정 부서만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에 참여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안전 보고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발견하고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위험요인까지 함께 살피고 공유하며,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환자안전에 힘써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퀴즈 하나에 담은, 안전을 지키는 마음

2026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 (09.17)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2026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 속 실천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퀴즈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관한 10문항을 풀며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만점자에게는 커피 쿠폰과 추첨을 통한 깜짝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QPS팀과 감염관리팀이 병동을 직접 방문해 생활동 참여자(환자)분들과 함께 환자안전·감염관리 OX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O·X로 답하며 안전수칙과 감염예방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과 참여자 모두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는 거창한 실천보다 작은 관심과 반복되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QPS팀과 감염관리팀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병원 문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행운의 주인공 10분을 소개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5기 신입직원온보딩_3차 수료식 (09.18)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의 마무리를 넘어, 지난 100일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직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경험한 변화와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을 고민하며 각자의 비전을 작성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각자가 작성한 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의 다짐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업무와 경험을 가진 신입직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해나행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비전 작성은 막연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00일 동안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의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들이 자신의 성장 방향을 구체화하고, 개인의 비전과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온보딩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넘어, 지난 100일의 경험을 성장의 자산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를 스스로 그려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기 신입직원들이 자신만의 비전을 바탕으로 해나행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나의 3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나」

	장승희 8층 생활재활파트	참여자 분들과 가족처럼! 동료들과 친구처럼!! 해나행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신나현 8층 생활재활파트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8병동에서 가장 친절한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8층 생활재활파트	참여자분들을 보면 한순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걸 매번 저희는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참여자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매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자분의 마음까지 보살펴줄 수 있는 해나행의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김수연 재활치료1팀	참여자분들에게 딸같은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를 애정하지만 때로는 따갑고 단호한 잔소리도 퍼붓는 딸의 모습으로!
	김주영 진단검사팀	검사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직원이 되어 정년때까지 친절한 검사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건강증진팀	친절하고 일잘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임혜선 내과내시경팀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형미 내과내시경팀	환자의 작은 불편도 세심하게 살피고, 정확하고 신속한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현중 총무팀	총무팀의 든든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우리 병동이 6층에서 8층으로 이사하던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한달간은 너무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매일 만보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여전히 힘든 날도 많지만 몸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첫 직장이라 아직 서툰점이 많지만 입사하면서 가진 각오와 책임감으로 오래오래 환자들을 보살피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B생활재활파트_신나현



제가 벌써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사첫날 긴장한 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환자 파악하랴 일 배우랴 정신 없었거든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많이 성장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이 사진은 편마비 환자의 손 강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손 마사지기 입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해달라고 할 때는 떨리고 미숙했는데 이제는 환자분이 제가 젤 잘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웃지도 않던 분이 이제는 저에게 농담도 해주시고 웃어 주기까지 하십니다.이럴 때 나도 성장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생활재활파트_김정희



입사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사실 사진과 같이 풀업을 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처럼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잘 적응하면서 이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참여자분들과 운동치료를 하면서 함께하며 소통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한 분 한 분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노력했는데, 신기하게도 참여자분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3개월을 토대로, 앞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며 제 일의 의미를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_김수연



간호 조무사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해운대나눔과행복 병원에서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과 긴장으로 시작 했지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고 함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입사동기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생활재활파트_장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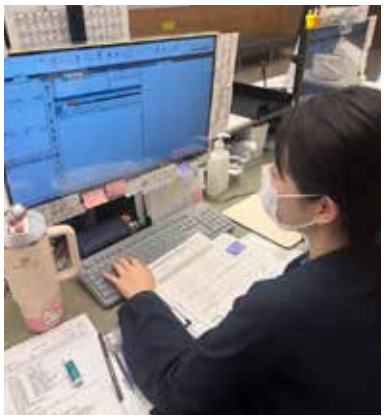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7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며
친절하고 좋은 검사실 선생님들
덕분에 어색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검사실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단검사팀 _김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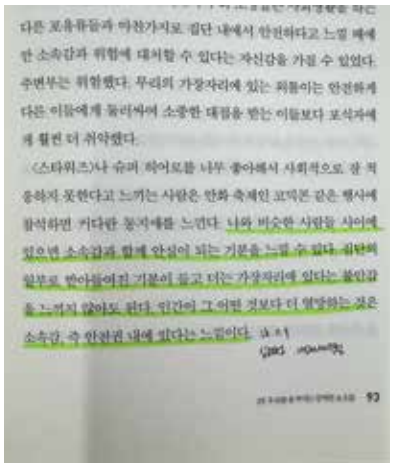
내과 외래에서 업무를 배우며
하루하루 적응해가던 순간을 담은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업무들이 하나씩
익숙해지면서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입사 후 100일의 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 생각해
골랐습니다.

내과내시경팀 _오형미



여름에 입사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어, 벌써
입사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씩 업무를 익혀가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동료분들
덕분에 회사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씩 배우면서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팀_정지우



새로운 곳에 이직 하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신입교육과
세심한 업무 지도, 알찬 부서교육 덕분에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며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신입교육 과정에서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소속감과 함께
안심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집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기분이 들고 더는 가장자리에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열망하는 것은 소속감, 즉 안전권 내에
있다는 느낌이다."
혼자라면 막막했을 배움의 과정이었지만, 부서에서 이루어진 알찬 교육 내용과 함께해 준 동료들
덕분에 커다란 동지애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가장자리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내과내시경실이라는 '안전권' 안에서 든든한
팀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참여자분들께 안전한
간호를 전하는 구성원이 되고싶습니다.

내과내시경팀_임혜선



어느덧 저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근무한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던 기간을
지나 지금 수료식에 이르렀기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무하면서 항상 스스로 지키려고 애쓴
마음가짐은 '평정심'입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문 얼른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_김현중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6기 신입직원온보딩_1차 OT (09.10)

이번 교육에서는 병원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함께 살펴보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고, 같은 출발선에 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진 병원 시설 라운딩을 통해 각 공간의 역할과 참여자들의 치료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라운딩 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실장님께서 관련 내용과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들이 병원의 공간과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삶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온보딩은 새로운 직장과 업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를 이해하고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해나행의 구성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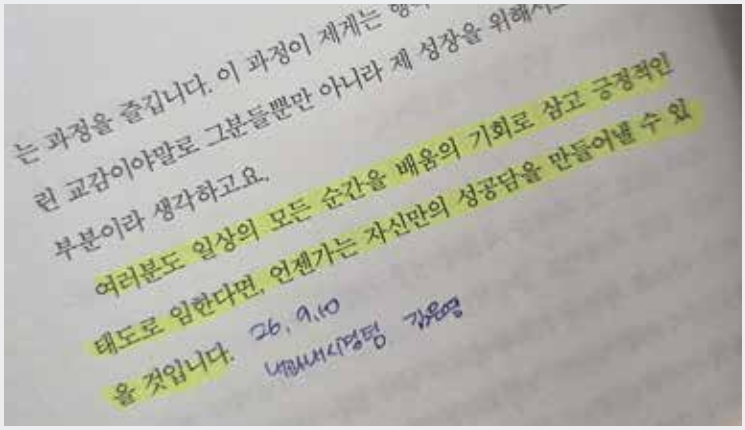
앞으로도 신입직원들이 해나행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사람? Call My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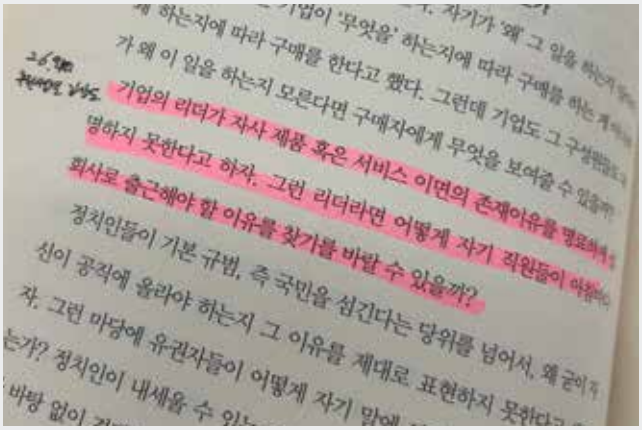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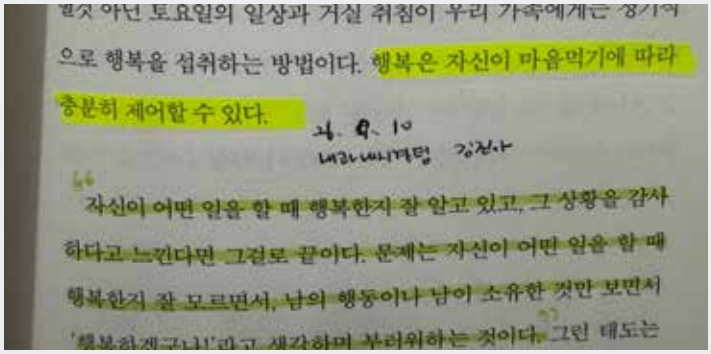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 과정이 제게는
린 교감이야말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 성장을 위해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성공담을 만들어낼 수 있
을 것입니다. 26. 9.10 네임시계명팀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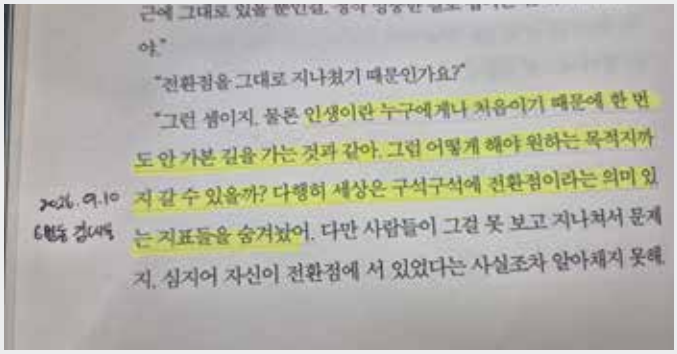


기업의 리더가 자사 제품 혹은 서비스 이면의 존재이유를 명료하
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리더라면 어떻게 자기 직원들이 아침
회사로 출근해야 할 이유를 찾기를 바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기본 규범, 즉 국민을 섬긴다는 당위를 넘어서, 왜 굳이
신이 공적에 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자. 그런 마당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자기 말에
는가? 정치인이 내세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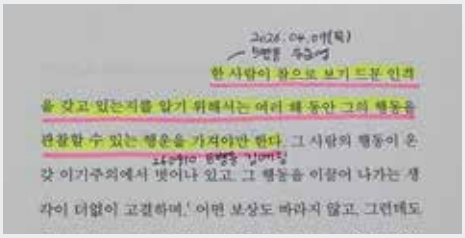
으로 행복을 섬취하는 방법이다. 행복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26. 9. 10 네임시계팀 김진아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을 감사
하다고 느낀다면 그것로 끝이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잘 모르면서, 남의 행동이나 남이 소유한 것만 보면서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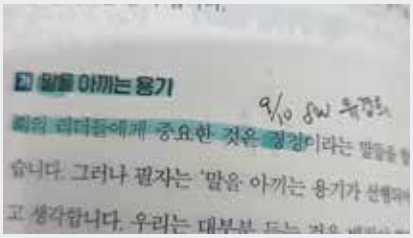


야."
"전환점을 그대로 지나쳤기 때문인가요?"
"그런 셈이지. 물론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과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적지까
지 갈 수 있을까? 다행히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는 의미 있
는 지표들을 숨겨놨어.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지나쳐서 문제
지. 심지어 자신이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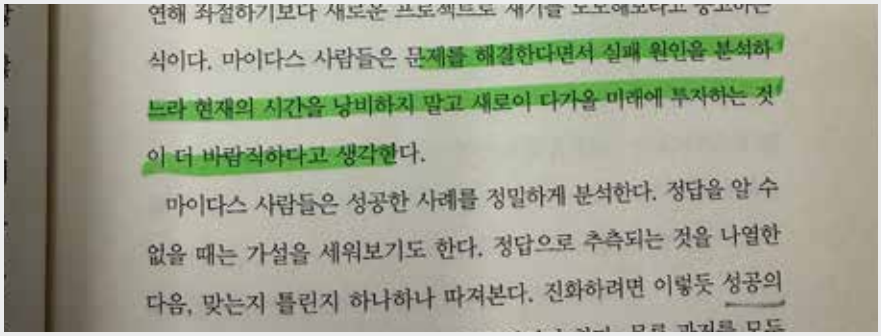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
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
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
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이면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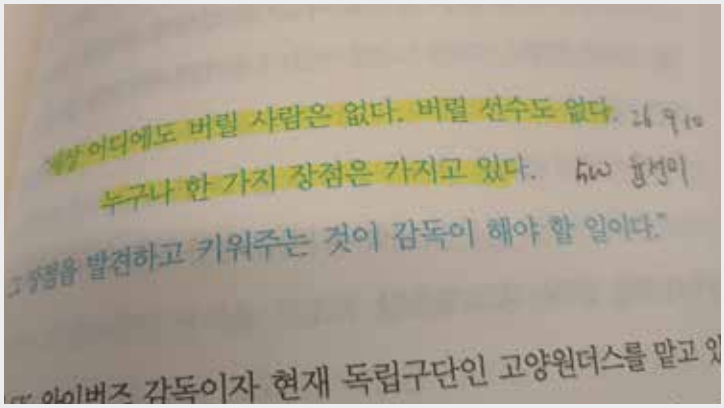


말을 아끼는 용기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말들을
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말을 아끼는 용기가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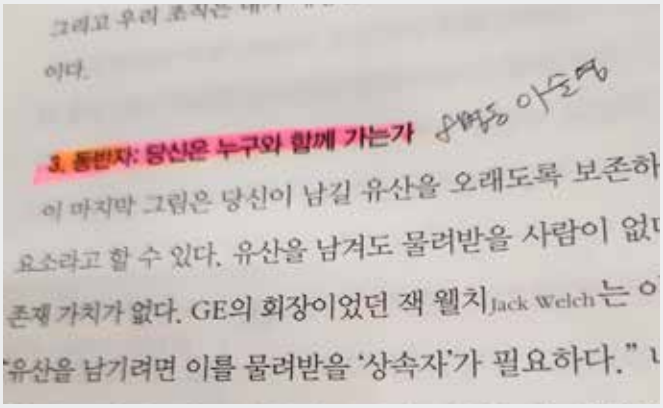


식이다. 마이다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
느라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이 다가올 미래에 투자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이다스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설을 세워보기도 한다. 정답으로 추측되는 것을 나열한
다음, 맞는지 틀린지 하나하나 따져본다. 진화하려면 이렇듯 성공의





어디에도 버릴 사람은 없다. 버릴 선수도 없다.
누구나 한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감독이 해야 할 일이다."
아이버즈 감독이자 현재 독립구단인 고양원더스를 맡고



이다.
3. 동반자: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 마지막 그림은 당신이 남길 유산을 오래도록 보존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산을 남겨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
존재 가치가 없다.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Jack Welch는
유산을 남기려면 이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필요하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8월의 마지막 날,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휠체어스쿨 (08.31)

8월의 마지막 날,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프로그램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배움과 연습을 향한 열정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반에서는 접시콘 회전, 경사로 오르내리기, 횡경사 주행 등의 기초 조작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 분씩 차례로 연습에 참여하며 자신의 동작과 주행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기본적인 조작 능력을 익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고급반에서는 최근 새롭게 바이크를 구매한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내에서 익힌 기술을 실제 주행 환경에 적용해 보기 위해 해운대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바이크를 조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외부 주행에서는 단순히 주행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접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한풀 꺾인 더위와 함께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가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선선한 바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조금 더 힘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9월에도 안전하고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긴

스포츠체험 (09.03)



이번 체험에서는 볼링을 진행했습니다. 볼링을 처음 접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즐겁게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퇴원 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자 두 분이 찾아와 주셔서 더욱 반갑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전으로 실력을 겨뤄본 뒤, 팀을 나누어 팀전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만들어졌고, 경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스페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전광판에는 스페어 처리가 된 것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기 후반 이 점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서 모두가 웃으며 "역시 이기려면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해프닝 덕분에 더욱 즐겁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볼링 체험을 마친 후에는 카페에 들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참여자 두 분은 바이크를 이용해 병원까지 직접 이동하며 한층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며 자신감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한 걸음씩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이번 스포츠체험은 체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동하고 활동하는 시간까지 참여자들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키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8월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9.11)







"선생님들이 있기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어요."

출석왕 신○숙 님

"좋은 인연들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개근하겠습니다."

출석왕 김○용 님

"낮병동 치료사 선생님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친절해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자립왕 박○수 님

"자립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왕 장○선 님

일상재활센터에서는 치료를 넘어, 스스로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활은 어느 한순간의 큰 변화보다 매일 꾸준히 치료에 참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참여자분들의 노력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센터를 찾는 발걸음도, 스스로 해내기 위한 작은 시도도 모두 소중한 재활의 과정입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전하며, 일상재활센터는 앞으로도 참여자분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재활생활 (09.09)





슬기로운 재활생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총 15명의 참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활 중 영양관리의 핵심: 단백질 섭취」를 주제로 영양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정희 영양팀장께서 재활치료 과정에서 단백질이 갖는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재활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본원에서도 재활치료를 고려하여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1:1 비율로 구성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평소 자신의 식사습관을 돌아보고 재활치료와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입 냄새가 날 수 있는지' 등 평소 식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재활과 영양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활치료에 필요한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강의시간이었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9.05)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일정은 10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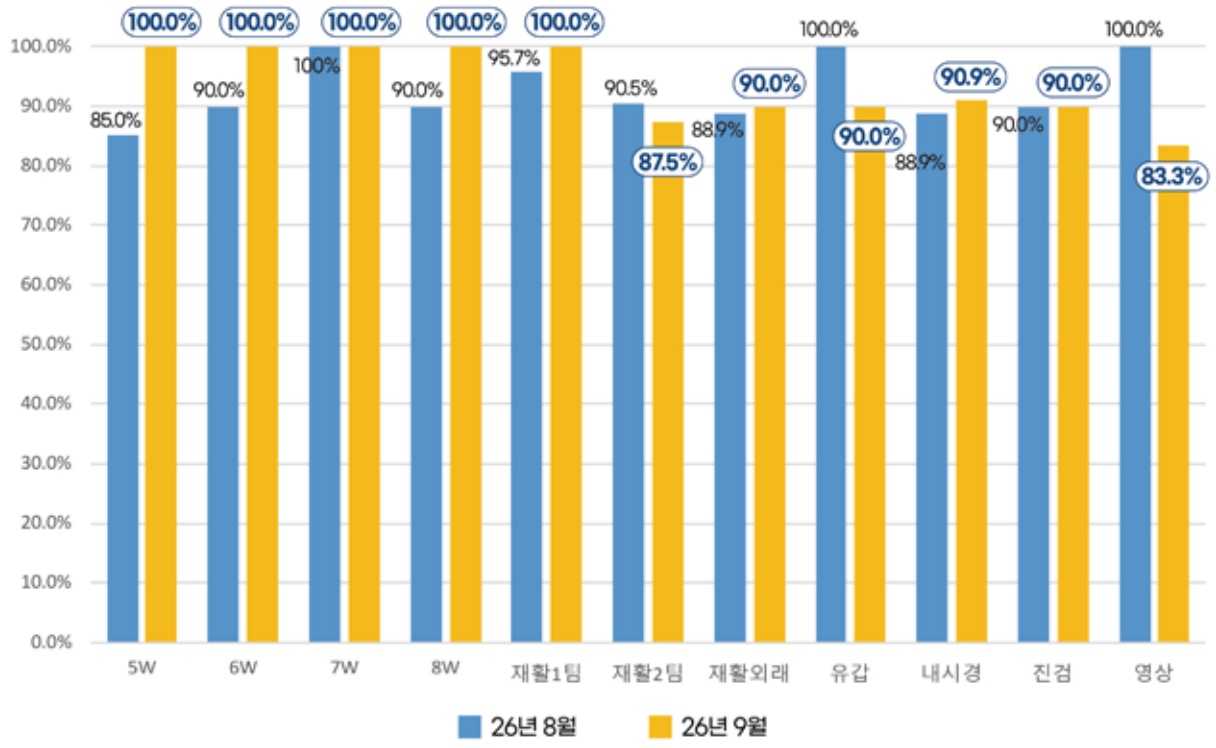
2026년 9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8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0	162	95.3%	+ 3.1%

9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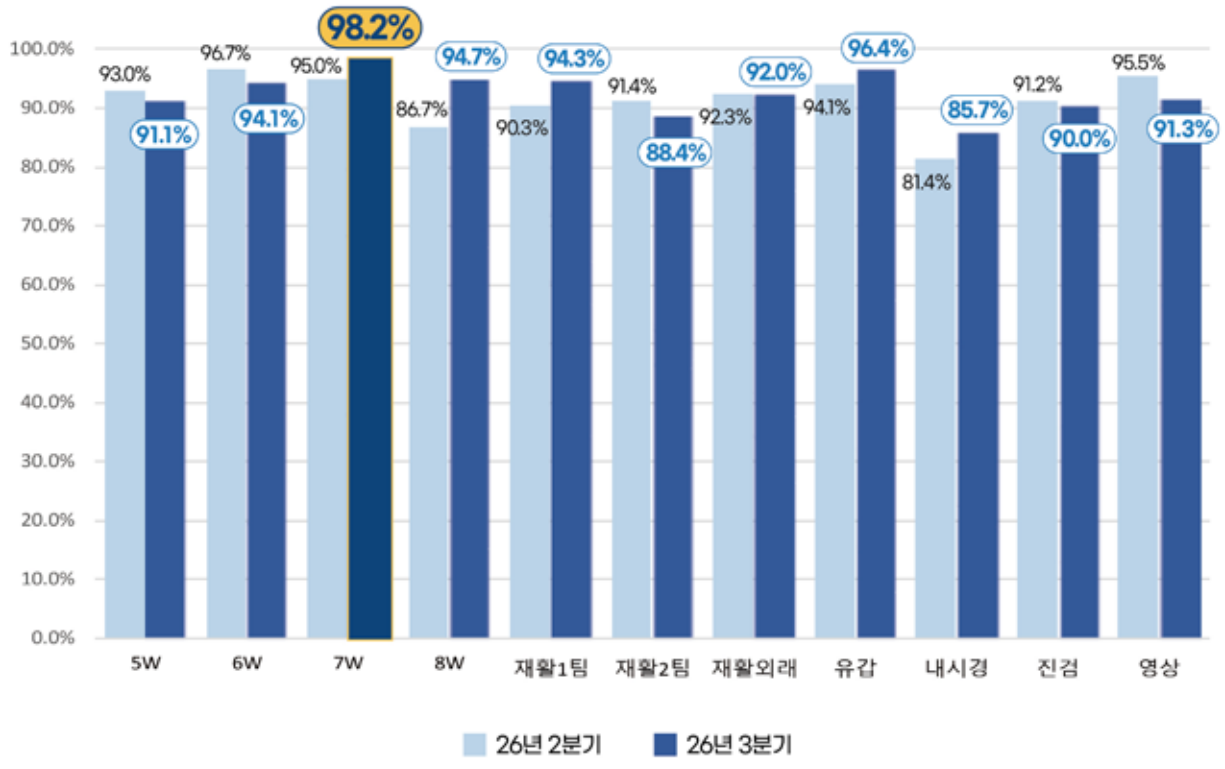
2026년 3분기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9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지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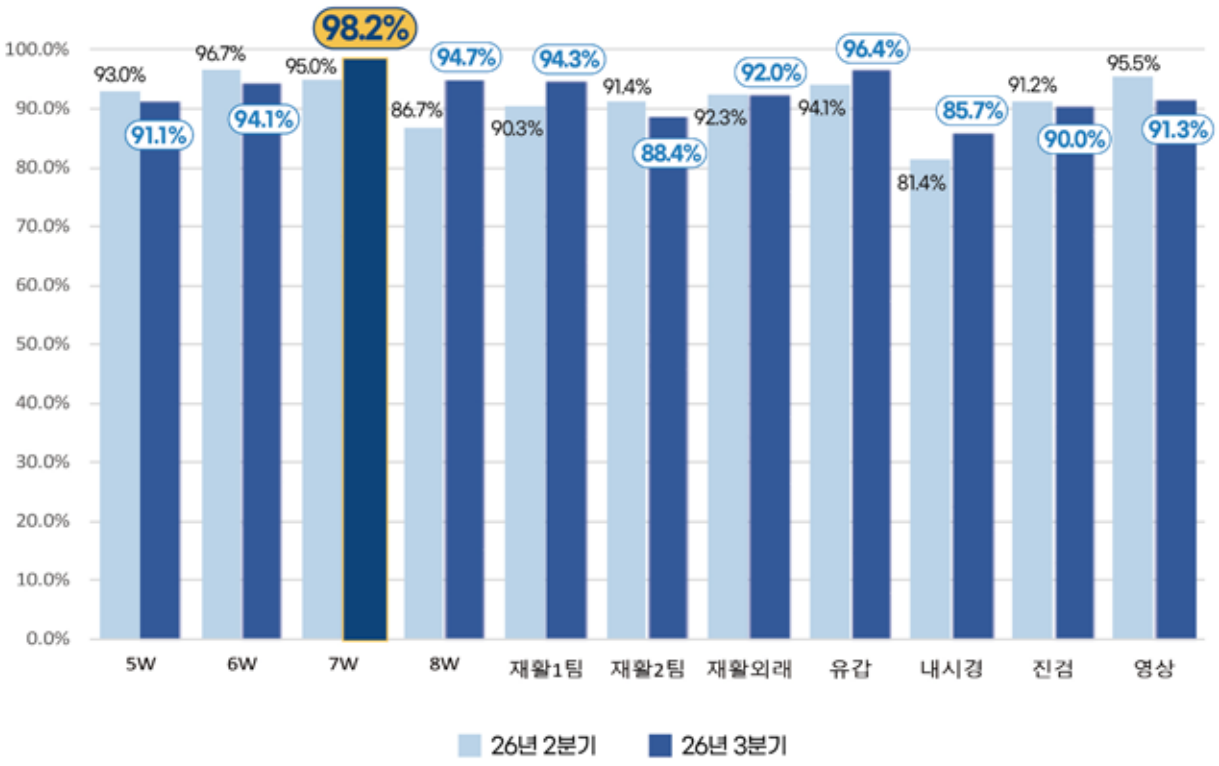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499	462	92.6%	+1.2%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7층 생활재활센터' 3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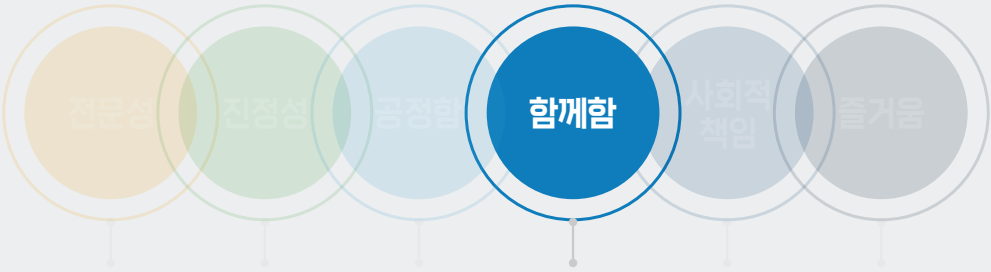
2026년 3분기(7월~9월) 손위생 수행률은 총 499건의 관찰 중 462건이 수행되어 92.6%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인 90%를 2.6%p 초과하였으며, 지난 분기 대비 1.2%p 상승하여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부서별로는 7W가 98.2%로 가장 높았으며, 유갑 96.4%, 8W 94.7%, 재활1팀 94.3%, 6W 94.1% 순으로 높은 수행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8W와 재활1팀은 전분기 대비 뚜렷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미달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손위생 수행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09월의 신규입사자



내과내시경팀
김 은 영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권 제 준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김 대 용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김 예 림 간호사



재활간호팀(7W)
박 우 진 간호사



재활치료2팀
최 민 주 작업치료사



시설팀
나 태 훈 안전관리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김영랑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원무팀 심준영 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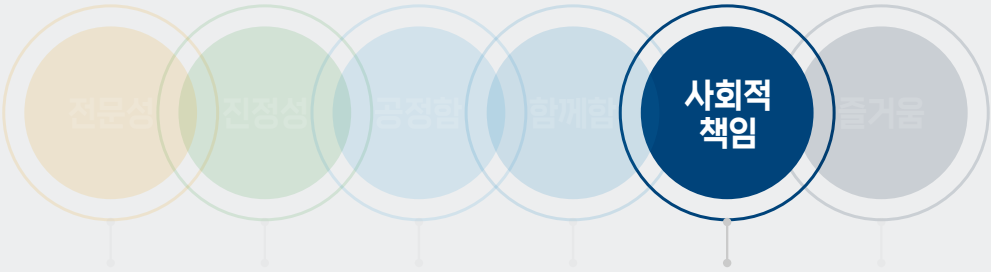


재활치료1팀 배강림 주무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9.11 / 09.15)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82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월의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갑상선 유방과 선생님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진료하고 설명해줘서 믿음이 가고 주위에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 과에 근무하시는 간호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셨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앞에 앉은 간호사 선생님도 친절했고 직원 모두 친절했어요.**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여기 병원은 처음이라 긴장하며 내원했는데 **신수영 선생님, 앞에 간호사 두 분, 방사선과 선생님(유방촬영)** 모두들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유방 촬영 할때 다른 병원들은 너무 아프고 검사 할 때마다 긴장되고 그러는데 **방사선사 선생님**께서 불편하지않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참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모두 건강조심하시고, 내년 정기검진 때 뵐게요♥

검진센터 앞에서 탈의실 다정하게 안내해 주셨음. 성함이 생각나질 않네요.

건강검진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접수 수납 쪽에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본인 순서가 아직 안되었지만 순서를 물으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순서대로 해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라고 양해를 구하는 직원분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환자도 직원도... 아이가 간호학과 지망하는데 취업시키고 싶은 병원입니다.

내과 남지현선생님 담당 간호사분 위대장내시경 전화로 예약 잡을때도 하나라도 더 도움 주시려 애쓰시던 목소리에 감사했는데 실제로 뵙고도 같은 마음이라 너무나 감사했어요~(부산사람이 사투리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경남 쪽 사투리 너무 귀여우세요~^_^ 더 친근한 기분)

유.갑센터 **서영화선생님 담당 간호사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무과 선생님, 검진 도움 선생님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기분좋게 진료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성함을 모르겠는데 **채혈해주시는 정면에서 봤을때 왼쪽에 계신 단발 퍼머 머리 하신 분**은 정말 친절하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수선생님 안내해주시는 분(오른쪽 끝)친절하셨고 **수납 직원분(왼쪽 끝)**께서 제가 흘리고 간 신용카드도 연락해주시고
나눔과행복은 올 때마다 병원이라기보다 편안히 나들이 오는 곳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내과에 접수하시는(간호사분) 상냥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름은 처음방문이라서 잘 몰라서 적지 못해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직원분들 친절하시네요~^^**

내분비내과 앞 응대 여직원이 엄청 친절하고 업무 처리가 똑 소리 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5층에 계시는 간호사, 조무사 쌤들 모두 칭찬합니다. 늘 따뜻하게 보살펴주셔서 감사해용

오늘 수납 도와주신 **원무과 김ㅇㅇ 남자 직원분** 너무 친절하셔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병원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벼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_^ (12시 30분쯤에 당시 수납처에 남1, 여1계셨는데 그 중 남자분이십니다. 칭찬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센터 표지 모델로 계신 갑상선(백선미교수님) 진료 쪽 간호사 분.
성함은 모르지만 세침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저를 마음으로 안심 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초진이고 예약없이 갔는데 **접수 데스크에 계신 분**이 잘 알아봐주셔서 당일 갑상선초음파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선미 원장님방 간호사분들 정말 친절하시고 덕분에 갈 때마다 진료 잘 받고 있습니다.

성함은 모릅니다. **새로오신 주야 미화여사님**들을 칭찬하고 싶네요. 조용하시면서 불편함 없이 미화를 담당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저녁 담당분은 매우 유쾌하십니다.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진료부장

점심시간 임에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내과 고인영 선생님의 진단 및 주의해야 할 음식 등 설명이 좋았습니다.**

건강증진팀 **김수민** 팀원

김수민 선생님이 **동선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안헷갈리고 검사 잘받았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부장

김현수 부장님과 간호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칭찬합니다.

영상의학부 김현수 부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직원분의 친절함에 감사드려요.
다음 건강검진도 이곳에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도 하고 싶어요.

재활치료1팀 **김희진** 치료사

운동 선생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노력에 이만큼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남지현** 과장

내과 남지현과장님께 진료받았는데 환자의 검사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지현 과장님께서 국가 건강 검진 외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가성비있게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눔과행복병원 내과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요.
내과 의사 남지현 선생님께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다녀오는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나눔과행복병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친절한 간호사님들도 감사합니다~~♡♡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내과 박미경 선생님과 선생님 담당 간호사 분 정말 친절하시고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분비내과 박미경 선생님, 친절하고 전문적인 진료에 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박미경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배우고 옵니다.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심장내과 박민아선생님, **박민아선생님의 접수 직원 간호사님(2026.8.27.근무) 모두 너무 친절하시고 세심하게 안내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박민아 전문의의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감동했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갑상선과 백선미 원장님의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설명, 그리고 원장님실 간호사샘들도 다들 정말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싶은 병원이네요. 벽에 있던 글귀도 인상 깊었어요ㅎㅎ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백선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갑상선 고주파시술 관련하여 금일 방문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환자들을 마주할텐데 백선미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믿고 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장님의 친절과 상냥함에 반했습니다^^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 / **하예린** 팀원

작업 담당이었던 두 분. **제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박지한** 치료사

선생님의 열과 성의에 힘입어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서대원** 치료사

늘 장난도 받아주시고 힘겨운 재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서대원쌤 칭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서영화** 과장

갑상선 의심 여부로 진행된 모든 절차에 차근차근한 설명과 검사까지 해주신 서영화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진료에서 검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민지** 과장

당일 검사를 하고싶었는데 잘 연결해주셔서 시간도 아끼고 두 번 걸음 안하고 진료 잘 받고 왔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진료를 봤는데 신민지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시고 안심시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부장

신수영 선생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셔서 긴장했던 마음도 풀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수영 원장님 넘 미인이시고 친절하셔서 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 처음 방문인데 너무 꼼꼼하게 진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방 신수영 센터장님과 오늘 첫 진료였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지난번 차트와 비교해서 이야기해주시면서 환자로서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덜어주시고
병변의 발병요인이나 추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셔서
오늘 걱정안고 검사받으러 간 제 마음의 불안이 많이 얕아졌습니다. 다음에도 꼼꼼한 진료 잘 부탁드려요.

모든 의료진의 섬세한 안내, 특히 전문 의사(갑상선 암 고주파 절제술=신수영)선생님의 치료 절차 및 현재 질병 진행 상태 및 초음파 영상 진료 의사 선생님 또한 영상 촬영 현장에서 사진 판독 설명 등이... 아파서 생사가 두려워 찾아오는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 신뢰을 제공하는 팀워크의 전체적인 구성이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걱정 많이하고 방문했는데..신수영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재검때 뵐께요!!

신수영 선생님 꼼꼼하신 초음파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장수윤** 치료사

운동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지도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장수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소화기 내과 정민정 선생님 친절하세요

모든 의료인분들이 친절하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받고 왔습니다. 내과 정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지은선** 치료사

정말로 칭찬합니다. 늘 밝은 에너지로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도움주는 쌤이십니다.** 나이는 내가 훨씬 많은데 언니처럼 넘 편안함에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텐션 높은 성격도 나랑 똑같고 쌤 많이 사랑하고 감사해요.

재활치료2팀 **홍종혜** 치료사

쾌활하고 귀여운 동생처럼 늘 굴어주시는 쌤들 덕에 나의 병원생활을 좀 더 슬기롭고 밝고 기운낼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 덕에 답답하고 지겨운 병원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무진장 칭찬합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네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4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추어탕 정식

극한의 무더위를 무사히 잘 넘기고 나니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한낮의 햇볕은 따뜻함보다는 뜨거움에 가깝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이맘때면 유난히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라운딩 때, 복도에서 마주친 참여자분께서 제게 툭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추어탕이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기억해 두었다가
오늘 참여자분의 식탁에 추어탕을 올렸습니다.

영양팀이 자신 있게 꼽는
3대장 국 중 하나인 추어탕.

구수하고 깊은 국물에
밥 한 숟가락을 든든하게 말아 먹으면
여름 내내 더위에 지친 몸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어탕 정식에는
매콤한 양념으로 입맛을 돋우는 닭볶음탕,
달콤한 단호박에 고소한 치즈를 더한 단호박치즈구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단배추나물을 함께 담았습니다.

한 끼 식사에도
계절의 맛과 영양, 그리고 정성을 담아봅니다.

음식은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그릇의 국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문득 생각나는 음식이고
그리운 맛이며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따뜻한 기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양팀은 참여자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나며 건넨
“추어탕이 먹고 싶어요.”라는 한마디가
오늘은 따뜻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따뜻한 추어탕 한 그릇이
더위에 지친 몸을 든든하게 달래주고
다가오는 계절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k-직장인의 성장 일기 4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직장인이 되어버렸습니다

MBTI가 파워 I입니다.

소심하고 내향적인 데다
말보다 침묵이 편하고,

퇴근 후 약속보다는
내 영혼의 단짝인 침대와의 약속이 더 반가운 직장인입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충전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배터리가 조금씩 차오릅니다.

반대로 회식은 다릅니다.

배터리 1%에서 시작해서
사람 한 명 만날 때마다 1%씩 더 줄어드는
고속 방전 모드입니다.



회식이 끝날 때쯤이면
제 배터리도,
사회성도,
표정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제 의견을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평소에는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생각들은 단체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헛소리 하나가
머리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말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집에 와서 또 생각합니다.
'그 말을 왜 했지?'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웃기만 하자.'
'절대 먼저 말하지 말자.'
'눈도 적당히 마주치자.'
아니, 그냥 눈을 마주치지 말자.

하지만 다음 날 또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은
저에게 늘 작은 재난이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발표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님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재난 영화가 상영됩니다.

'지금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전쟁이 난다면?'

평소에는 평화로운 세상을 누구보다 바라지만,
이날만큼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발 무슨 일이라도 생겨라."

중요한 발표를 앞둔 날이면
내일 발표를 피할 수 있는
그럴듯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럴 때만큼은 참 성실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고,
결국 저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심장은 이미 마라톤을 뛰고 있고
손에는 땀이 나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첫마디부터
염소도 울고 갈 떨리는 목소리에
'이게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표는 끝이 납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실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아무도 제 발표를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하나씩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저도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선 후배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긴장하는 후배를 보면
가끔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인지 그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압니다.
'떨지 마.' 라는 말보다
'떨려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아직 떨리니까요.

여전히 사람 많은 곳은 어렵고,
갑작스러운 질문은 무섭고,
발표 전날이면 온갖 핑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고,
떨려도 한마디를 해보고,
말을 망쳐도 집에 와서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내향적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오래 준비하고,
조금 더 많이 긴장하고,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편했던 사람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혼자가 편했던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직장생활에서의 성장이란
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는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때 어려워했던 것을
똑같이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꽤 괜찮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직장인이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웃고,
필요한 순간에는 한마디를 꺼내고,
퇴근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침대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겁은 많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는 사람으로.

K-직장인은 그렇게
내향적인 성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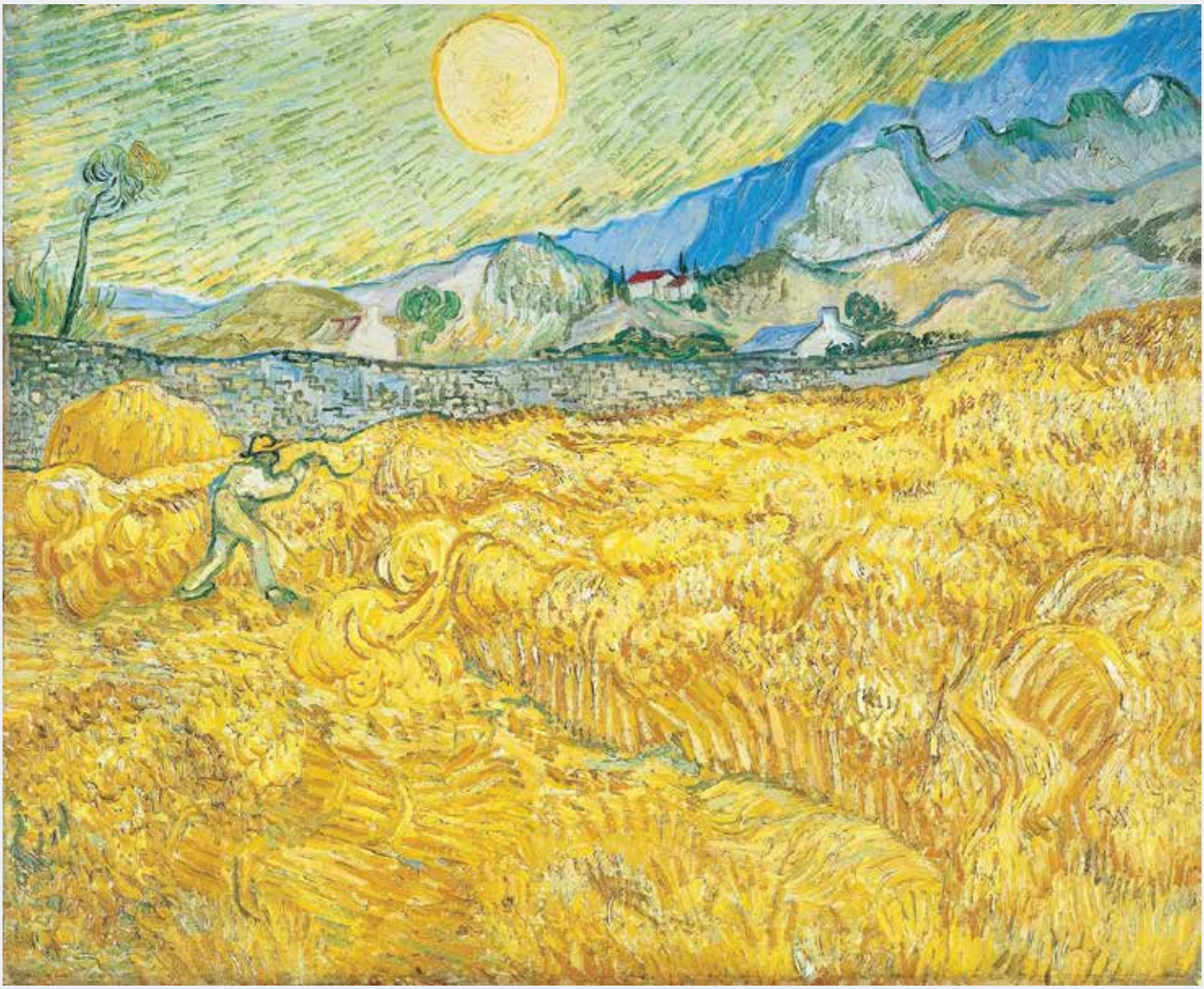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 생폴 병원 뒤의 밀밭》 The Wheatfield behind Saint Paul's Hospital with a Reaper, 188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9.5 × 72.5 cm
폴크방 미술관 Museum Folkwang, Essen, Germany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53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9월 30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